



■ 연구원 주요일정

- 06월 05일(月) : 주간회의
- 06월 07일(水) : 연구원 야간강좌

■ 연구원 소식

○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와 협약체결(6월 1일)

- 날짜 : 2017.06.01(木) 오후 4시
- 장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 내용 : 우리 연구원이 6월 1일에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센터장 : 이연숙) 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양 기관은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모색을 약속하였습니다.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까지 연구원의 역량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를 향해 가는 연구원에 보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5차 운영위원회 실시 (6월 2일)

- 날짜 : 2017.06.02(金) 오후 5시
- 장소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회의실
- 안건 : 문화강좌 관련의 건
- 내용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갈 예정이었던 러시아 해외역사탐방이 참석자 인원 기준 미달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월에 해외탐방을 대신할 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 추가 진행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참석하신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7월 문화강좌 진행이 의결되었습니다. 알찬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준비하겠습니다.



○ 지역종교문화답사 안내(6월 24일)

- 시간 : 2017.06.24.(土) / 모이는 장소 : 한벽루
- 내용 : 우리연구원 김천식 전임연구원이 안내하는 종교문화답사가 6월 24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정은 오전 9시 한벽루에서 모여 "아름다운 순례길"을 따라 완주군 화심까지 도보 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가희망자는 도시락을 지참하신 후 6월 24일 9시 까지 한벽루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의는 연구원 사무국으로 부탁드립니다.

■ 회원 동정

○ 의병의 날 기념 인터뷰

: 우리 연구원 **“이강안 감사(광복회 전북지부장)”** 가 6월 1일 의병의 날을 맞이하여 전북 일보와 우리지역 독립운동가 조희제 선생과 그의 저서 『염재야록(念齋野錄)』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전북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 전문입니다.



영화 '암살' '밀정' '덕혜옹주' 등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전북지역 의병활동을 기록한 독립운동가 조희제 선생(1873~1939)의 '염재야록(念齋野錄)'은 외면 받고 있다.

1950년 책이 세상에 나온 지 67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지역 의병사와 달리 한글 번역본은 조희제 선생의 고향인 전북 도민들조차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의병의 날(6월 1일)을 이틀 앞둔 30일 광복회 전북지부 이강안 지부장은 “우리 지역의 병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염재야록'이 도민들에게 생소한 건 뼈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 염재야록의 탄생 비화

지난 1873년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에서 태어난 조희제 선생은 조선 왕조가 멸망하고 일제의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는 시대를 살았다.

조희제 선생은 구한말 의병활동이 가장 치열했던 임실에서도 유독 투철한 항일의식을 갖고 있던 아버지를 보며 '염재야록'을 편찬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재야록 서문에는 '초야에 묻힌 하찮은 벼슬아치나 선비의 경우 의리를 앞세워 적을 공격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또한 쉬운 일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들의 행적은 역사책에 솔하게 빠져 오랫동안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집필 동기가 적혀있다.

조희제 선생은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 애국지사들의 행적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존에 편찬된 황현의 '매천야록'과 박은식의 '한국통사'의 장단점을 염재야록에 비교해 적어놓기도 했다.

지난 1931년 완성된 염재야록의 초고는 '덕촌수록'이라는 이름으로 집 마루 밑에 보관돼 왔다.

'덕촌'은 조희제 선생이 살던 '덕치'를 가리키며, 덕촌수록은 '덕촌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뜻이다. 전북지역의 의병활동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 단순한 마을 이야기를 적은 책처럼 보이게 해 일제의 감시를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1938년 겨울 조희제 선생은 의병활동사 편찬 사실이 들통나 임실경찰서로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이듬해 6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해방이 되고 5년 뒤 1950년 제자 조현수가 마루 밑에 숨겨져 있던 '덕촌수록'을 꺼내 총 6권으로 구성된 '염재야록'을 간행했다.

△ 67년 지난 염재야록 한글 번역본 언제 나오나

염재야록은 현재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는데, 간행된 지 67년이 지났지만 한글로 된 번역본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광복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의병사(야사)는 조희제의 염재야록(전북지역)과 황현의 매천야록(전남·충청지역), 송상도의 기려수필(영남지역)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매천야록과 기려수필은 이미 한글 번역은 물론, 다양한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염재야록이 주목받지 못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도내 의병 자료를 역사적 가치로 재조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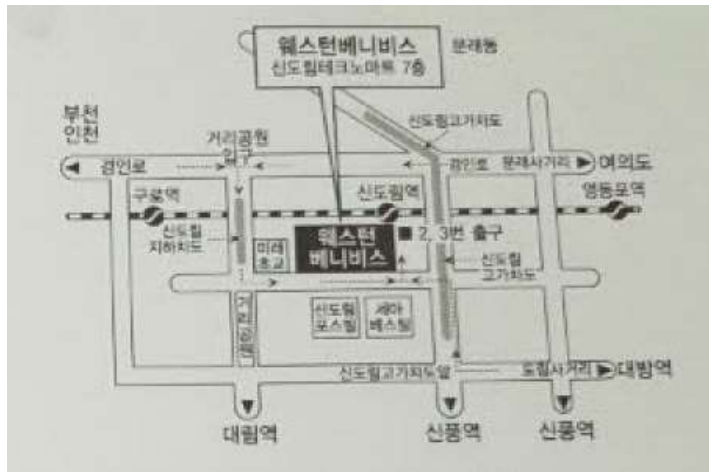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변주승 교수는 "당시 경찰에 의해 조희제의 글과 문집 등이 압수되면서 남은 자료가 많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히 후대 연구자들의 관심이 조희제와 염재야록에 미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광복회 전북지부 이강안 지부장은 "조선 후기 호남 의병은 학계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의병 및 독립운동 자료를 발굴해 번역·발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박해성 회원 차녀 혼인

: 우리 연구원 박해성 회원의 차녀 박민하 씨가 혼인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7. 06. 10(土) 오후 3시
- 장소 : 웨스턴베니비스 아스타홀(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7층)
- 지하철 : 1호선, 2호선 신도림역 하차 2번, 3번 출구



○ 윤지용 회원 혼인

: 우리 연구원 회원인 도서출판 기억 윤지용 대표가 혼인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능하신 회원께서는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7. 06. 17(土) 오후 12시
- 장소 : 전주 오즈하우스웨딩(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32)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기 간 :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 진 행 :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교 재 : 『호남의사열전』

※ 호남의사열전이라는 사료를 통해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야간강좌가 **6월 7일(水)에 종료** 됩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새로운 주제와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 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자소개

- 두보(杜甫; 712~770).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자(字)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안사(安史)의 난으로 사방을 유랑하다가, 장강의 배 위에서 숨을 거뒀다. 이백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의 시는 이백과 달리 웅혼하면서도 침통하여 사실주의 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 작 품

夢李白(第1首)

死別已吞聲(사별이탄성)
生別常惻惻(생별상측측)
江南瘴癘地(강남장려지)
逐客無消息(죽객무소식)
故人入我夢(고인입아몽)
明我長相憶(명아장상억)
恐非平生魂(공비평생혼)
路遠不可測(노원불가측)
魂來楓林靑(혼래풍림청)
魂返關塞黑(혼반관새흑)
今君在羅網(금군재라망)
何以有羽翼(하이유우익)
落月滿屋梁(낙월만옥량)
猶疑見顏色(유의견안색)
水深波浪闊(수심파랑활)
無使蛟龍得(무사교룡득)

이백을 꿈꾸고(첫째 수)

사별은 목 메이면 그만이나
생이별은 두고두고 가슴 아픈 법
강남은 풍토병에 염병이 만연한데
쫓겨난 그대는 소식 감감하다가,
친구여, 그대가 내 꿈에 들었으니
내가 늘 그리워했음이 분명하여라!
평소와는 영판 다른 모습으로
길이 멀어 궁금증을 풀 수 없으니,
꿈에 푸른 풍향수 숲을 나와
꿈에 시커먼 변방의 관문으로 나갔었지.
그대 지금 포승줄에 매였으니
어찌해야 날개를 얻을까나?
지는 달이 내 집을 비추기에
아마도 그대 얼굴도 보리니,
물 깊어 물결 심한 그곳에서
부디 교룡일랑 조심하시게.

■ 감 상

- 741년 집으로 돌아온 두보는 양씨(楊氏)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양씨는 두보의 평생 배필이었다. 뒷날 두보는 궁핍 속에 떠돌아다니면서도 언제나 아내를 동반하였다. 잠시라도 떨어져있게 되면, 아내를 그리는 마음을 틈틈이 시에 담았다.

744년 두보는 평소 사모하던 천재 시인 이백을 마침내 만나게 된다. 이백은 궁정에서 추방되어 산동성으로 향하던 걸음이었었는데, 여정에서 잠시 낙양에 들른 것이다. 이들은 단번에 의기투합하여, 오늘날 하남성(河南省)이 자리 잡은 양(梁)과 송(宋)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시인 고적(高適)과 잠참(岑參)을 만나,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우정을 다졌다. 이들과 헤어진 뒤, 두보는 강남(江南)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백과의 여행이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두보는 두고두고 이백의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백이 역모에 연루되어 귀양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근심 속에 연사할 동안 이백을 꿈꾸기까지 하였다. 이때 지은 시가 「몽이백(夢李白)」 두 수중 첫 번째 수이다.

■ 역사속의 오늘

◆ 편집자 주 : 이번 호 뉴스레터 역사속의 오늘은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87년 6월을 통해 삶의 물줄기가 바뀐 우리 연구원 김복례 회원이 겪은 87년 6월과 그 이후의 기억입니다. 앞으로도 “역사속의 오늘”이 회원에게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년 그해 나는 대학 새내기였고 열아홉 살이었다.

열여덟 해동안 무던하고 순진하게만 살아왔던 나는 열아홉 그해에 그 후 세상을 살아갈 힘을 길어 올린 우물 하나를 팠던 해였다.

그 우물은 웅숭깊고 잔잔하지만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고마운 우물이었다.

고3 시절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기절할 정도로 공부에 시달리며 피폐해진 내 젊은 영혼을 위로하고 싶었고 보상받고 싶었다.

열아홉 봄은 하얀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쓰디쓴 커피를 마시며 근사하게 걸어보고 싶었다.

열아홉 여름은 물방울무늬 원피스를 입고 하냥하냥 쓰다니고 싶었다.

그러나 소꼴을 베어다 정성들여 키운 소 한 마리를 판 칠십만원에서 정확히 만삼백원을 남기고 납부한 대학 등록금이 무색하게 상아탑은 우울했고 젊은이들은 불만에 쌓여있었고 사회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이 열렸고 그걸 본 첫날은 다리가 후들거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다.

잔인한 현장을 목도하고도 무심한 듯 지나쳐 갔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파란이 일기 시작했다.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는 연일 집회가 열렸고 학생기를 통해 토해내는 학생들의 사후는 가슴속 울분을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봄날에서 여름까지 영어영문학과 영어연극반에서 단역을 맡아 연극연습에 몰두해 있을 때였고 민주광장을 지나쳐 무대가 있는 소강당으로 갈 때는 뒷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에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아마 한쪽에서는 땡볕에 온몸을 그을려가며 독재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있었는데 나는 세월 좋게 연극연습을 한다는 자괴감이 들었던 듯하다.

박종철 고문치사가 있는 후 전국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사경을 헤매면서 전국은 벌집을 들쭉셔놓은 듯 들끓었다.

그로부터 20일간 전국적으로 5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몰려나왔고 4.13 호헌철폐, 직선제 개헌쟁취, 독재정권 타도 등 반독재정권에 민주화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결국 6월 29일 전두환과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국민 앞에 대항복 선언을 한다.

6.29 선언은 건국 이래 국민들이 직접 쟁취해낸 민주화의 다디단 첫 열매였다.

2학기가 시작되고 연극은 무대에 오르고 이틀 동안 맥베드속에 나오는 미망인 역할을 맡아 혼신을 다한 연극은 막을 내렸다.

마지막 날 무대를 철거하고 소강당을 나오는데 소소한 바람이 불어오며 텅 빈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 발로 혼자 걸어 들어가 앉은 곳이 민주광장 집회대오였다.

그때의 이슈는 사학비리를 밝혀 학내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사회분위기가 6.29선언이후로 느슨해졌지만 학내는 여전히 전쟁 중이었다.

전주대학교는 신동아그룹이 재단이었는데 재단전입금을 단 한 푼도 학교로 투자하지 않고 있었다. 수업거부는 계속되고 있었고 학생들은 연일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진출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학내민주화와 독재정권의 타도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대자보를 작성하여 시내곳곳에 부치고 나면 손발이 축축 늘어졌지만 '무언가 바뀌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에 부풀어 고된 줄도 모르고 팔달로를 뛰어다녔었다.

수업거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의 방법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 보지도 않은 재단의 몰염치에 화가 극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자식같이 키운 소를 팔아 피 같은 대학등록금을 낸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이 그놈들 뺨속을 불리는 데 일조를 하였다는 분노, 63빌딩의 휘황찬란한 높이와 위용이 등골이 휘도록 평생을 받고랑에 바쳤을 어머니의 청춘에 대한 울분.

이것들은 한데 뒤섞여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투쟁만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총장실 점거농성을 하기에 이른다.

그날 스크림을 짜고 대학본부로 올라가는 날, 소슬바람이 뺨속을 훑고 지나갔다.

학교 쪽은 도서관에 있던 학생들까지 내보내고 철저히 고립시켰다.

텅 빈 천장별에 어둠이 밀려오는데 도서관 의자와 책상으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끝까지 버티는 길만이 학내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일념뿐이었다.

학생과 학교당국 사이 대화의 창구는 막혀있었고 우리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었고 결사항전 뿐이라고 믿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난다.

본부 태극기가 걸려있는 테라스에서 바라본 전주시내는 평화로웠고 점점이 밝힌 불빛을 보니 미치도록 집에 가고 싶었다.

어둠이 밀려와 뼈곡하게 차있는 대학본부, 전기도 끊어지고 물도 끊어진 고립무원인 그곳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가.

저 멀리 후문입구에 백골단이 하얀 헬멧을 쓰고 새벽이 오면 쳐버리겠다고 전갈을 보내오는데 무서워서 심장은 오그라질 대로 오그라져 있었다.

그때 옆에 서있던 선배가 "복레야? 오늘밤 백골단이 쳐들어오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혹여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 있어?"

순간 흑하고 빗장뼈 사이로 찬바람이 훑고 지나가는데 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숨을 참았다가 내뱉으며 "죽을 수 있어요..."

열아홉에 같이 싸울 동지들이 있다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다고 느꼈던 감정은 너무도 소중한 진심이었다. 열아홉에 결사항전하며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그 감정은 훑고 그름에 항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다행히 그들은 쳐들어오지 않았고 장기간의 농성으로 이어지면서 지쳐가기 시작했지만 혹독한 환경에서도 불어터진 라면 한 그릇을 놓고 서로에게 양보하던 장면, 농성중인 자식과 그 벗들에게 따순밥 한그릇 먹이겠다는 일념으로 들통에 밥을 해서 이고 생김치를 담아 천잠산을 넘어오셨던 선배 어머니의 굽은 허리는 오래도록 남아있어 생에서 무언가 결정을 지을 때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곤 했다.

나는 며칠 후 티비에 비친 화면에 딱 걸려 친구 집에서 시험공부 한다고 거짓말했던 것이 들통나고 엄마 손에 이끌려 정읍가는 버스 뒷좌석에 실렸다.

두고 온 동지들의 안쓰럽고 걱정되어 대성통곡하면서 목젓이 붓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며칠 동안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해 12월 대통령후보 유세에 노태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주역으로 반대투쟁을 나갔다가 채증을 당해 수업시간에 사복경찰에 끌려가 경찰서에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았다.

삼십센티 자로 머리를 딱딱 때리며 '기집애가 집에서 밥이나 할 것이지 벌써부터 데모질이나 하나'고 능글거리던 형사 놈의 손모가지를 물어버리고 싶었으나 그럴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열아홉살의 여러 장면들은 아직 물이 덜 오른 봄날의 여린가지 마냥 어렵풋하고 여릿하다.

삼십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해를 생각하면 용광로 같은 뜨거운 기운이 발바닥을 들뜨게 했고 용기를 내야 하는 곳에선 악다구니라도 써서 저항을 하게끔 내가 만들어진 해였다.

87년 그해 대학을 다녔던 벗들을 만나면 그해 이야기를 하며 서로의 손을 꼬옥 잡는다. 그대와 맞잡은 손이 있어 이 험한 세상 견딜 수 있었다고...

다시 돌아가 그해를 살라하면 선뜻 대답 못하겠지만 참 감사했다고 말하고 싶다.

87년 같은 시공간에서 살았던 선배, 동료, 같은 과 예비역 아저씨들, 하물며 학생들을 경찰에게 밀고하던 학생과 직원들한테까지...

전주대학교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으로 다시 교정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곳곳에 묻어있던 대학 4년간의 체취가 다시금 새록새록 스물스물 피어오른다.